

전 남

10만개 누에고치로 만든 '대형 누에' 국제 농업박람회 랜드마크로

전남도, 10월 행사 앞두고 명품 전시관 조성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국제 농업박람회(10월 5일~29일)에 누에 10만개로 만든 대형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전남도는 13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10만개 누에고치로 만든 대형 누에가 등장, 진귀한 명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벌레들을 고부가가치 자원화하는 곤충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누에는 예로부터 '하늘이 내려준 별레'라 불릴 정도로 소중한 곤충으로 누에를 이용한 인공고막, 인공 뼈 등 의료용은 물론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도 개발돼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이끌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누에의 이런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 누에고치 10만개를 이용해 대형 누에 조형물을 이번 박람회의 랜드마크로 제작하고 있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흑표범누에 등 35종의 다양한 색깔의 누에와 성장 단계별 곤충의

모습을 전시해 직접 보고 만지면서 관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 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 박래복 사무국장은 "살아 움직이는 곤충이 돋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산업곤충관을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 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곤충은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 화분매개, 환경정화, 식용, 애완용, 의료, 교육용 등으로 이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시장규모는 현재 1500억 원대이며 오는 2015년에는 3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이선희씨 현재(사진 위 왼쪽)와 어렸을 때 모습.

"45년전 헤어진 엄마 꼭 찾고 싶어요"

이선희씨, 고향 나주 찾아와 재회 호소

"45년전 헤어진 엄마를 꼭 찾고 싶습니다."

최근 나주시 주민복지과를 찾은 이선희씨(52·경남 김해 거주)는 어렸을 적 사진을 내밀면서 7살때 헤어진 엄마를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씨 기억에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고, 지금의 송월동 근처에 살면서 자전거를 탔으며, 할머니가 양잠을 했었다. 여섯살 때쯤 비오는 날 밤

에 엄마 손에 이끌려 나주배를 손에 든 채 영산포에 있던 '희망원'에 맡겨졌다.

이씨는 영산포에 있던 희망원이 해체되고 광주 송정리에 있던 백선육아원으로 옮겨지면서 어머니와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김선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씨는 "엄마는 일을 해야 했기에 자신을 육아원에 맡겨 놓고 1주

일에 한두번씩 찾아왔기 때문에 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딸이 장성해서 제 몫을 하고 보니 엄마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외갓집과 외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마음에 물어놓았던 혈육의 정을 이제야 풀고 싶다"고 재회를 호소했다. 연락처 경남 김해시 김해중앙교회(055-333-2771), 나주시 주민복지과(061-339-8507).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acson@

복합 물류항만 위상 세계에 떨친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사장 이상조)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YGPA는 창립 1주년을 맞아 19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이라는 뉴비전 2020 선포식 및 창립 기념식을 갖는다.

'뉴비전 2020'은 변화하는 세계 항만물류 환경 속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항만산업 관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항만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조성된 195만㎡ 규모의 동측 배후단지는 100% 임대 완료돼 25개 물류제조 기업이 가동 또는 준비 중에 있고, 최근 준공된 193만㎡ 규모의 서측 배후단지는 세계적인 부품소재 기업인 맥스켄이 3000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물류량 확보 마케팅도 적극 나서 기항선박을 주 72항차에서 75항차로 증차시키고 러시아 항로를 신규 개설했다. 또 실질적 물류창출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에 우량 제조, 물류업체 입주 추진해 화물 창출형 배

여수광양항만공사 1주년...19일 뉴비전 2020 선포식



광양항 컨투어 전경

후단지조성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기존 선석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내놓으며 다른 항만과 차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상조 사장은 "공사 창립 이후 지난 1년간 유럽발 경제위기와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성장 정체, 화물연대 파업 등 수많은 악재가 많았으나 "일상화된 관행과 안일함으로

는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8만5000TEU, 총물류량 2억 3400만톤을 처리해 부산에 이어 국내 2위, 세계 16위 복합 물류항만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군 농기센터, 벼 병해충 방제 총력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식)가 벼 병해충 방제와 풍년농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센터 직원들은 최근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과 함께 마을을 찾아 벼 병해충 발생 상습지와 취약지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벌규류의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방제했을 경우 8월 하순에 밀도가 급격히 증가해 벼의 품질저하와 수량감소를 우려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를 벼 병해충 중점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긴급 예찰·방제 기술 지원반을 편성해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고온기 방제 작업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순천 교도소

'수형자 아버지학교' 이달말까지 진행

순천 교도소(소장 박현조)는 두란노 서원 '아버지학교' 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기독교 수형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수형자 아버지학교'를 개설했다.

'수형자 아버지 학교'는 전국에서 자원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관계자와 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해 10일부터 오는 31일 까지 매주 금요일 교도소 소내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수형자 아버지 학교'는 ▲수형자들에게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확립하도록 돕고 ▲수용생활로 인해 멀어진 가족과의 갈등을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극복할 용기와 치유의 장을 마련해 주며 ▲공공적으로 가정을 회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현조 소장은 "한 사람의 수형자가 올바른 아버지상을 회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리잡을 때 진정한 수형자의 사회복귀가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수형자 아버지학교'와 같은 심성변화 교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주시, '한전 KPS 연수원' 사업 변경 재심의 의뢰

영산강환경청정 요구사항 반영 사업계획서 재작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전 KPS가 나주 다도섬 근처에 세울 계획이었던 나주연수원 건립이 최근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계획 재수립 통보를 받은 것(광주일보 8월10일 2면)과 관련, 나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제작성해 재심의의 의뢰하기로 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공문을 통해 "식생 및 생태

적 기능 보전과 조망권 보호 등을 이유로 연구시설로의 입지가 부적절하다"면서 "혁신도시내 조성이나 대체 부지를 마련해 계획을 재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제기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조망권 확보 및 경관보호 지역 등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계획

서를 재작성해서 전남도에 심의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에 총 25만㎡ 규모의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15만㎡로 축소했는데도 이런저런 사유로 사실상 불가를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서 부지면적 7만㎡로 줄이고, 건물배치 위치도 내륙으로 대폭 이동해 조망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acson@

농협·전경련 '1사·1촌 자매결연' 농촌 활력



농협 중앙회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농촌사랑 1사(社)·1촌(村) 자매결연'을 추진, 농협·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현재 1사 1촌 935쌍이 체결돼 농촌과 농업인에게 231억원의 실익이 제공되는 등 활발하게 도·농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지역 자매결연은 기업체가 476곳으로 가장 많고 ▲관공서 125곳 ▲사회공공단체 45곳 ▲소비자단체 63곳 ▲농협 57곳 ▲기타 169곳으로 지식경제부, 특입장관실, 전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 현대상호공업, 한국자산관리공사, 현대증권, 삼성생명·화재, KT, 금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용량(용량)용량(용량)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 상담하여 방문상담하여 입주할 아베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H.P 011-659-7001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직영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대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충장건축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이다.
5. 장독대, 빨래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들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 상기 특허 도청 및 이미지 등록 시 개별정보에 의해 고장되지 않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걸릴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미터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원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번거워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반영구적이라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새는다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었는데 색도 안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달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용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발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